

〈운영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엄태식*

— <차 례> —

1. 서론
2. 애정전기소설의 전통과 〈운영전〉
3. 몽유록의 전통과 〈운영전〉
4. 〈운영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운영전〉은 1인칭 여성 서술자의 존재, 궁녀인 여주인공의 등장, 액자소설식 구성 등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는 〈운영전〉만의 독창이 아니라,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의 전통을 계승한 결과이다. 〈운영전〉은 김진사의 성적 욕망을 다룬 애정전기소설이자, 유명이 사회적 욕망을 다룬 몽유록이다. 17세기에 이르러 애정전기소설은 우의적 성향이 사라지면서 통속적 성향이 강화되는데, 이는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몽유록이 우의의 양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운영전〉은 이와 같은 소설사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소설이다.

주제어 운영전, 애정전기소설, 몽유록, 안평대군.

1. 서론

〈운영전〉은 문학사적 의의와 문학적 성취를 모두 획득한 작품으로, 이미 고전(古典)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운영전〉은 학생

* 아주대학교 강사

이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소설 시리즈에서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는 작품이고,¹⁾ 고전소설 전공자들의 번역·교감 작업도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무척 많아서 연구사도 거듭 정리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전>을 향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 최근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소설이 매우 문제적인 작품이기 때문이었다.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의 항거 및 중세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³⁾ 운영·김진사의 죽음과 비극적 결말,⁴⁾ 여성 주인공과 여성 서술자의 등장,⁵⁾ 풍유 양식의 수용과 중층적 액자구조,⁶⁾ 자란·무녀 같은 주변인물의 부각과 특이라는 악인의 존재,⁷⁾ 안평대군에 대한 애매한 서술 태도,⁸⁾ 수성궁이라는 공간,⁹⁾ 등장인물 간에 얽혀 있는 삼각관계,¹⁰⁾ 작

-
- 1) 권혁래, 「생산과 수용의 측면에서 본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박이정, 2012, 116~117쪽.
 - 2) 본고에서 <운영전> 연구사는 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으로 미룬다.
 - 3)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6;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 4)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5)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 6)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 『어문연구』8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59, 한민족어문학학회, 2011.
 - 7) 김정숙,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 상황의 조정자로서의 자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품 창작의 연원 및 양식적 특징,¹¹⁾ <운영전>의 시대적 배경 및 사상사의 관련성,¹²⁾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관계,¹³⁾ 작자 문제와 창작 시기,¹⁴⁾ 소설사적 의미¹⁵⁾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운영전>은 작품 안팎의 모든 것이 다 문제적인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양식적으로 볼 때 <운영전>은 애정전기소설이기도 하고 몽유록이기도 하다.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는 애정전기소설이지만, 몽유자 유영을 중심으로 본다면 ‘입몽(入夢)-좌정(坐定)-토론(討論)-시연(詩宴)-각몽(覺夢)’의 서술 구조를 따르고 있는 몽유록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따르면, <운영전>은 이 작품

-
- 8)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9) 엄기영, 『운영전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1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정규식, 『운영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리』,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 10)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11) 김현룡, 『한중소설설비교연구』, 일지사, 1976; 송정애, 『운영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7; 하은하, 『운영전에 관한 양식내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4; 전용오, 『운영전의 발생론적 고찰』, 『인문논총』10,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26, 국문학회, 2012.
 - 12)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9,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13) 배원룡,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고찰』, 『국제어문』2, 국제어문학회, 1981; 김낙효, 『영영전과 운영전의 비교연구』, 『한국학논집』1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5, 국문학회, 2001.
 - 14) 大谷森繁, 『운영전 소고』,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정규복, 『운영전의 제문제』, 『한국고소설사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2.
 - 15)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최재우, 『운영전 갈등구조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열상고전연구』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38, 한국고전문학회, 2011.

이 속해 있는 양식의 특성을 뛰어넘는, 돌출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애정전기소설은 대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적 욕망을 표출한 양식이다. 그런데 <운영전>은 궁녀라는 신분의 여주인공을 등장시키고 그녀의 목소리로 연애 사건을 진술하게 만들으로써,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여성 '주체'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몽유록은 몽유자의 몽중 체험을 통해 이념의 관철 혹은 사회적 욕망의 표출에 중심이 놓여 있는 양식이다. 그러나 <운영전>은 지금까지 대개 그 형식적인 면에서만 몽유록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을 뿐, 대부분의 연구에서 애정전기소설로 다루어 왔다. <운영전>은 왜 애정전기소설이면서도 몽유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의 양식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운영전>을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¹⁶⁾

2. 애정전기소설의 전통과 <운영전>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의 욕망의 객체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애정전기소설은 사대부 문인지식인층의 꿈과 원망(願望)을 반영하는 양식이자 사랑받는 주인공의 양식이기 때문이다.¹⁷⁾ 그런

16) 본고에서 <운영전>을 비롯한 한국 애정전기소설 작품들은 모두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를, 唐傳奇는 李昉等編, 『太平廣記』(中華書局, 1961)를, 『전등신화』는 정용수 역주, 『전등신화구해 역주』(푸른사상, 2003) 부록의 규장각본 『剪燈新話句解』를, 四書는 『經書: 大學·論語·孟子·中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을 대본으로 한다. 인용 시에는 작품명 및书名과 쪽수만을 표시한다.

17)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1996, 333~365쪽;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데 <운영전>은 애정전기소설이면서도 여타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여성의 주체적 면모가 뚜렷이 부각되는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⁸⁾ 이에 대한 가장 정밀한 분석은 김경미의 논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운영전>은 1인칭 여성 서술자의 존재로 인해 ‘여성 공간의 확보, 여성 내면의 풍부한 서술, 남녀의 정욕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운영전>은 여타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여성 인물을 주체의 모습으로 등장시킨 소설로 이해된다.¹⁹⁾ <운영전>은 정말로 애정전기소설의 남성 중심적 서사 문법에서 벗어나 여성 주체의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일까?

<운영전>은 그 제목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일반적인 제명(題名) 방식과는 다르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대부분 남성을 제목에 내세우고 있으며,²⁰⁾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은 <동선기(洞仙記)> · <숙향전(淑香傳)> ·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등 17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중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唐) 전기(傳奇) 가운데는 <앵앵전(鶯鶯傳)> · <임씨전(任氏傳)> · <유씨전(柳氏傳)> · <곽소옥전(霍小玉傳)> · <이와전(李娃傳)> · <사소아전(謝小娥傳)> · <보비연

1995, 53~67쪽.

18)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0에서는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전반에서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읽었고,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에서는 여타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운영전>에서만큼은 여주인공이 욕망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고 하였다.

19)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59~61쪽.

20) <崔致遠> · <李生窺牆傳> · <何生奇遇傳> · <周生傳> · <韋生傳> 등이 그 예이다.

(步飛煙: 飛煙傳) > <무쌍전(無雙傳)> 등이 있고, 당 전기를 계승한 『전등신화(剪燈新話)』에는 <애경전(愛卿傳)> <취취전(翠翠傳)> <녹의인전(綠衣人傳)> 등이 있으니, ‘여주인공+전(傳)’은 중국 애정전기소설의 일반적인 제명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은 그 제명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²¹⁾

작품의 제목에 누가 나오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애정전기소설에는 남성과 여성이 등장하는데, 작자가 이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제목에 내세웠던 데에는 분명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을 제목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에서, <운영전>은 독특한 작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운영전>만큼 여성 등장인물의 비중이 압도적인 작품은 없다는 점, <운영전>이 여성 서술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운영전(雲英傳)’이라는 제목은 기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이 과연 운영을 욕망의 주체이자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는 점에 있다.

<운영전>은 운영이라는 여성 서술자의 목소리로 사랑 이야기가 진술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을 전복시킨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²²⁾ 그런데 이는 <운영전>의 독창이 아니라, <녹의인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²³⁾ 역시 중요한 문제는 여성 서술자의 존재가 과연 여성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영전>에 1인칭 여성 서술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하지가 않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치명적인 약점은 서술자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1) <英英傳>도 여주인공을 제목에 내세웠지만, 이 작품의 原題는 ‘相思洞記’ 혹은 ‘相思洞餞客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英英傳’은 <운영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온 제목일 것이다.

22) 김경미(2002), 앞의 논문, 59쪽.

23) 송정애(1997), 앞의 논문; 전용오(1996), 앞의 논문.

는 도저히 서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달리 사건의 전모를 독자들에게 완벽히 전달할 수 없게 만들므로, 현대소설도 아닌 고전소설에서 이 같은 서술시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운영전>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1인칭 시점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운영전>에서는 운영이 생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후(死後)에 전지(全知)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⁴⁾ 유영에게 안평대군 성시(盛時)의 일을 들려주고 있는 운영과 김진사는 원래 천상의 선관·선녀로서 죄를 범하여 적강(謫降)한 인물인데, 인세(人世)에서의 고락을 거친 후에는 다시 천상에서 만나 이 세상의 행복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있다. 운영과 김진사는 사후에 천상에서 만나 생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므로, 운영이 유영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운영이 생전에 알았던 내용뿐 아니라 김진사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운영이 완벽한 전지적 서술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녀가 사후에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자(死者)들 가운데 적어도 안평대군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작자는 운영과 김진사가 생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이야기의 전개상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서술하기 위한 보완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옛듣기’ 혹은 ‘옛보기’이다.

이때 열 사람은 창틈으로 몰래 엿듣고 있다가 (성삼문의 말에)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²⁵⁾

24)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116~137쪽.

25) 于時 十人從窓隙暗聞 莫不歎服(<운영전>, 345쪽)

이를 통해 작자는 안평대군과 성삼문이 궁녀들이 지은 시를 두고 평론하는 장면 등을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이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옛보기의 대상과 주체가 역전됐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운영전> 속의 여성 공간은 옛보기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서술자의 시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 여성의 공간이 남성들의 눈에 비친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과는 다르다는 점, 이 공간은 궁녀들 스스로 서로를 인격적인 하나의 주체로 이해하고 있는 진정한 유대 공간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²⁶⁾

애정전기소설에서 옛보기의 주체는 대개 남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운영전> 이외에도 여성이 남성을 옛보는 경우는 있었으니, <연방루기>에서는 난영과 혜영이 목욕을 하는 정생을 옛보았고,²⁷⁾ <이생규장전>에서는 최씨가 국학에 다니는 이생을 옛보았으며,²⁸⁾ <최척전>에서는 옥영은 정상사의 집에서 글공부하는 최척을 옛보았다.²⁹⁾ <연방루기> · <이생규장전> · <최척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바, 옛보기는 여성의 적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옛보기에 투영된 욕망은, 옛보고자 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옛보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이는 결국 운재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랑받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인 것이다.³⁰⁾ 한편 <주생전> · <위생전> 같은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내밀한

26) 김경미(2002), 앞의 논문, 46~48쪽.

27) 夏月 於船首澡浴 二女於窓隙窺見之 以荔芡一雙投下 生雖會其意 然仰視飛蕩峻宇 縹緲於霄漢 自非身具羽翼 莫能至也(<연방루기>, 上66쪽)

28) 엄태식(2010), 앞의 논문, 50~55쪽.

29) 一日 上舍方食不出 陟獨坐誦書 忽然窓隙中 投一小紙 取而視之 乃書標有梅末章(<최척전>, 422쪽)

30)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1996, 352~364쪽.

공간을 엿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들에서의 엿보기가 남성 욕망의 투영인 이유는, 남성 인물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 공간이 마치 남성들에게 보이기 위해 치장된 것처럼 유혹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³¹⁾ 그렇다면 <운영전>에서 엿보기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일까?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은 궁녀들을 모아 놓고 시를 가르치면서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하며 바깥사람이 궁인의 이름을 안다면 그 죄 또한 죽음일 뿐이다.”³²⁾라고 말했다. 수성궁 안을 엿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설사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김진사가 몰래 그곳을 엿보니 담장이 높고 험하여 몸에 날개가 없으면 당을 수가 없었습니다.³³⁾

<이생규장전> · <주생전> · <위생전> 같은 애정전기소설에서 남주인공은 ‘유장(踰牆)’과 ‘찬혈(鑽穴)’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주인공이 있는 규방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운영이 살고 있는 수성궁은 ‘유장’과 ‘찬혈’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성궁 속 궁녀들의 이야기가 1인칭 여성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서술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여성의 은밀한 공간인 규방이 남성의 ‘엿보기’를 통해 제한적으로 포착될 수밖에 없었지만, <운영전>에서는 여성 서술자의 존재로 인해 ‘엿보기’의 ‘시공간

31) 김경미(2002), 앞의 논문, 44~45쪽.

32)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人之名 則其罪亦死(<운영전>, 339쪽)

33) 進士密窺其處 則牆垣高峻 自非身具羽翼 莫能至矣(<운영전>, 366쪽)

적 제약이 완벽히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텍스트를 덮고 생각해 보자. 누가 누구를 엿본 것인가?

<운영전>의 독자인 남성들은 운영이라는 여성 서술자를 통해 규방보다도 더 깊은 수성궁과 그곳에 살고 있는 궁녀들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생규장전>·<주생전>·<위생전> 등에서는 남주인공이 담을 넘기도 하고 여주인공의 거처를 엿보기도 하므로, 그 자체가 이미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식된다. 또 이런 작품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시의 수창이라는 정신적 교감을 통해 서로 지기(知己)임을 확인하기도 하지만,³⁴⁾ 그래도 남성의 여성 겁탈을 미화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운영전>에서는 이와 같은 남성 폭력의 흔적조차 말끔히 소거되었던바, 그것은 결국 운영이라는 1인칭 여성 서술자의 등장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제 남성들은 ‘찬혈’과 ‘유장’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비난³⁶⁾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그 자신이 여성의 공간을 엿보고 [엿듣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34) 선행 연구에서는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의 육체적 결합 이전에 이루어지는, 시나 사의 교환 같은 문예 취향을 ‘정신적 공감’으로 설명하였고, 이런 주장은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말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대부가 여성이 외간 남자와 시를 주고받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예법에 어긋난 일이다. 고작 시 몇 편을 주고받은 일로, 여성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정절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애정전기소설의 삽입시가 남녀 주인공의 ‘정신적 교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목적은 결국 남성의 여성 겁탈을 미화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운영전>의 서술 시점과 그 의미를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조용호(1997), 앞의 논문; 신재홍(2004), 앞의 논문;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김수연(2010), 앞의 논문.

36) 『孟子』 <滕文公>下에서 “부모의 명과 중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고 엿보며 담을 넘어 쫓아다니면, 부모와 국인들이 모두 천하게 여긴다.[不待父母之命 媒妁之言 鑽穴隙相窺 踰牆相從 則父母國人 皆賤之]”(『孟子』, 565쪽)라고 하였다.

<운영전>은 여주인공이 궁녀라는 점에서 여타 애정전기소설과 구분된다. 17세기에 이르러 한국 고전소설에는 하층 신분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생전>·<왕경룡전>·<동선기> 등의 여주인공은 ‘기녀’이고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여주인공은 ‘궁녀’이다. 궁녀는 기녀와 마찬가지로 하층 신분이지만, 사대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 애정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주생전>의 배도, <왕경룡전>의 옥단, <동선기>의 동선 같은 기녀였을 뿐이다.

<운영전>에 보이듯이 궁녀는 궁궐 속에 갇혀 있기에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안평대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성삼문조차 궁녀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으니, 벼슬하지 못한 포의(布衣)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운영전>에서와 같이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부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포의가 궁녀와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셈이다.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은 지기인 남주인공을 향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정절을 아낌없이 포기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남주인공과의 혼인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결연 장면은 남성의 폭력과 겁탈을 남성의 입장에서 미화한 연애 각본이라고 할 만하다.³⁷⁾ 대개 사대부가의 외동딸로 설정되어 있는 여주인공이 보잘것없는 남주인공을 위해 정절을 버리고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성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궁녀의 최대 목표는 왕족의 첩실이 됨으로써 천한 신분과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운영전>에

37)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31~233쪽.

서는 운영이 자신을 사랑하는 왕족 안평대군을 마다하고 포의 김진사를 택한다. 여타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설사 여주인공이 남주인공과 혼전 성관계를 가졌을지라도 남주인공과 혼인하면 되었기 때문에 실절이 곧 죽음은 아니었다. 그에 반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그 자체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었고, 그들의 부정한 관계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운영은 분명 자신의 ‘의지’에 따라 김진사를 선택했으며, 그것은 그녀의 ‘주체적’인 행동이었다. 여기에 투영된 것은 운영의 욕망인가, 아니면 그런 여성을 꿈꾸는 남성의 욕망인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 투영된 남성의 욕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세 사대부 남성의 일반적 애정 대상인 노류장화(路柳墻花) ‘기녀’가 아닌, 누구나 꺾을 수는 없는 꽃인 ‘궁녀’를 꺾어 보고 싶은 욕망일 것이며, 그 같은 궁녀가 왕족인 안평대군조차 마다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일 것이다. <운영전>에 형상화된 바 궁녀들의 비현실적 생활공간과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궁녀라는 존재에 대한 남성들의 환상을 그려낸 것이 아닌가?

운영을 비롯한 10명의 궁녀들은 수성궁에 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수성궁은 대체적으로 ‘억압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수성궁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타당한 견해이다. 하지만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에서 볼 때, 수성궁은 <최치원>·<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의 무덤, <이생규장전>·<주생전>·<위생전>의 규방과 동일한 성격의 공간이며, 이곳들은 모두 여성들만의 내밀한 공간이라는, 다시 말해 ‘금남(禁男)의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성궁은 사대부가 여성들의 공간인 규방보다 깊숙한 곳이고, 기녀들이 있는 주루보다 신비한 곳이며, 궁녀들은 사대부가 여인이나 하층의 기녀들과는 달리 그 존재조차 감지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들이다.³⁸⁾

필자는 <운영전>이 <유선굴>과 매우 흡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유선굴>은 <최치원>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유선굴>이 <운영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운영전>에서 자란은 김진사와 운영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자란과 같은 존재는 이전 시기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유선굴>을 보면 오수(五嫂)가 장작(張鷟)과 십랑(十娘)의 결연을 돕고 있어 자란과 유사하다. <유선굴>의 여주인공은 선녀와 기녀의 이미지가 교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³⁹⁾ 이와 같은 선기합류(仙妓合流)의 모습은 <운영전>의 여주인공인 운영의 이미지와도 상통하니, <운영전>에서 운영을 비롯한 열 명의 궁녀들은 ‘여선(女仙)’처럼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운영(雲英)’은 당 전기 <배항(裴航)>에 등장하는 여선의 이름이었다.⁴¹⁾

앞서 보았듯이 <운영전>의 수성궁은 날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유선굴>에서는 십랑과 오수가 살고 있는 신선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고로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이곳은 신선굴이다. 사람의 발자취는 거의 미치지 않으며, 새가 다니는 길로만 겨우 통할 수 있다. 항상 향기로운 과일과 아름다운 가지가 있고, 선녀의 옷과 석발이 절로 떠오르는데, 어디로

38) 정규식(2011), 앞의 논문, 47~49쪽; 엄기영(2011), 앞의 논문 등에서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에 대해 논하였다.

39) 최진아, 『환상·육망·이데올로기,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8, 266~276쪽.

40) 進賜宮中 必儲養此十仙人 願毋隱一見(<운영전>, 345쪽)

41) 김현룡(1976), 앞의 책, 316~317쪽.

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⁴²⁾

수성궁과 신선굴이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운영전>과 <유선굴>의 유사한 면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운영전>에는 유독 ‘성정(性情)’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성정은 감추거나 억누를 수 없다든지, 시는 곧 성정의 발현이라든지 하는 생각은 성삼문·김진사·운영·자란을 비롯하여 안평대군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 대부분이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런데 <운영전>에서 ‘성정’은 대개 여성의 성욕과 관계가 있다.

자란 또한 원녀인지라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시는 성정에서 나오므로 속일 수가 없구나.”[紫鸞亦怨女 及聞此言 含淚而言 曰 詩出於性情 不可欺也]⁴³⁾

안평대군은 운영의 부연시(賦煙詩)⁴⁴⁾를 보고는 “시는 성정에서 나오므로 감출 수가 없다.”⁴⁵⁾라고 말했는데, 다음 날 밤 자란은 운영이 그간의 일을 털어놓자 위와 같이 안평대군과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운영의 부연시에서 성정을 드러낸 말은 ‘무산(巫山)’으로, 이는 남녀의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뜻한다. 또 운영은 자란이 ‘원녀(怨女)’였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원녀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하(下)에서 “안에는 원녀가 없었고 밖에는 광부가 없었다.[內無怨女 外無曠夫]”⁴⁶⁾라고 했을 때의

42) 古老相傳云 此是神仙窟也 人踪罕及 鳥路纔通 每有香菓瓊枝 天衣錫鉢 自然浮出 不知從何而至(張鷟, 川島 校點, 『游仙窟』, 書目文獻出版社, 1989, 1쪽).

43) <운영전>, 354쪽.

44) 望遠青烟細 佳人罷織紉 臨風獨惆悵 飛去落巫山(<운영전>, 342쪽)

45) 詩出於性情 不可掩匿(<운영전>, 343쪽)

원녀로,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다. 자란이 눈물을 머금으며 저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그녀 역시 운영처럼 성욕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던 것이다.⁴⁷⁾

그 밖에도 <운영전>은 여성의 성담론에 여타 애정전기소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점 <유선굴>에서 장작·십랑·오수의 대화나 시가 성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흐르면서 <유선굴>이 음서(淫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에 비할 수 있다. 물론 <운영전>은 결코 음서가 아니지만, 여타 애정전기소설과 비교할 때 성담론의 비중이 대단히 큰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운영전>에 나오는 바 여성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담론들이 정말로 여성 주체의 목소리일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운영전> 여성 서술자의 연원은 <녹의인전>에 있다. 하지만 <녹의인전>에서는 녹의인이 조원에게 전생의 일을 요약적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운영전>과는 다르다. 그런데 <유선굴>은 작자 장작이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어서, 1인칭 여성 서술자를 등장시킨 <운영전>과 상통한다.

애정전기소설, 특히 비극적 결말의 애정전기소설 가운데는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한 작품들이 많다. <임씨전>·<앵앵전>·<보비연>·<주생

46) 『孟子』, 482쪽.

47) 정환국(2003), 앞의 논문, 275쪽에서 “운영과 자란이 얻은 낙네팀은 ‘怨女’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원녀란 ‘나이가 찼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한 여인’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恨을 안은 여인’이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원녀라고 부르짖는 상황은 좀 다르다. 김진사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운영 앞에 나타난 자란은 이미 자의식이 투철한 인격체였다. 그녀는 궁녀로서의 한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은 자다. 그래서 그는 怨女로 자임하며, 운영의 아픔을 어루만지려 한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의 怨女가 원래의 의미 그대로 쓰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전>·<심생전> 등은 작품 말미에서 연애 사건에 대해 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⁴⁸⁾ 그 논평 속에는 대개 우물(尤物)⁴⁹⁾에 미혹되어 파멸하는 남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액자 구성은, 액자 외부에서 액자 내부의 사건을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운영전> 역시 이와 같은 애정전기소설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저는 짧은 험기와 호탕한 생각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했고 또 이 여자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으로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었으니 천지간의 한 죄인입니다. 죄인의 이름을 왜 굳이 알려고 하십니까?⁵⁰⁾

김진사가 자신의 이름을 묻는 유영에게 한 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상할 정도로 이 대목에 주목하지 않았으나,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에서 본

48) 嗟乎 異物之情也 有人道焉 遇暴不失節 狗人以至死 雖今婦人有不如者矣 惜鄭生非精人 徒悅其色而不徵其情性 向使淵識之士 必能揉變化之理 察神人之際 著文章之美 傳要妙之情 不止於賞玩風態而已 惜哉(<입씨>, 3697쪽); 時人多許張爲善補過者 予常於朋會之中 往往及此意者 夫使知者不爲 爲之者不惑(<앵앵전>, 4017쪽); 噫 豔冶之貌 則代有之矣 潔朗之操 則人鮮聞 故士矜才則德薄 女銜色則情私 若能如執盈如臨深 則皆爲端士淑女矣 飛煙之罪 雖不可道 察寄心亦可悲矣(<보비연>; 정병진, 『당대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2, 부록 157쪽); 大丈夫所憂者 功名未就耳 天下豈無未婦乎 況今三韓已定 六師將還 東風已與周郎便矣 莫慮喬氏之鎖於他人之院也(<주생전>, 280쪽); 梅花外史曰 余十二歲游於塾 日與同學兒 喜聽談故 一日 先生於沈生事甚詳曰 此吾之少年時窗伴也 其山寺哭書時 吾及見之 故聞其事 至今不忘也 又曰 吾非汝曹欲效此風流浪子耳 人之於事 苟以必得爲志 則閨中之女 尙可以致 況文章乎 況科目乎 余輩其時聽之 爲新說也 後讀情史 多如此類 於是追記爲情史補遺(<심생전>, 775~776쪽)

49) ‘尤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 보고사, 2003, 53~62쪽 참조.

50) 僕以年少俠氣 志慮浩蕩 不能自抑 又以此女之故 將父母之遺體 竟作不孝之子 天地間一罪人 罪人之名 何用強知(<운영전>, 336쪽)

다면 이 말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위의 인용문은 작품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건이 전개된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여타 애정전기소설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애 사건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루어진 진술이다. 액자 형식을 취한 애정전기소설을 보면, 대부분 작자나 서술자 혹은 제3자가 액자 내부의 사건을 평론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운영전>에서는 당사자인 남주인공이 연애 사건에 대해 직접 평론하고 있는바, 김진사의 진술은 여타 애정전기소설의 논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중한 발언이다. <운영전>에서 운영은 김진사 때문에 죽고 김진사 역시 운영을 그리워하다 죽으므로 둘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결국 저와 같이 요약되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몰랐겠지만, 거기서 벗어나 객관적 거리를 확보했을 때의 운영이란, 자신[김진사]을 천지간의 죄인으로 만들어 이름조차 밝힐 수 없게 만든 '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진사는 사대부가의 남성으로서 처를 맞아들여 후사를 이어야 했다. 맹자가 말했듯이 불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후사를 잇지 못하는 일인데,⁵¹⁾ 김진사는 운영 때문에 부모의 유체를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후사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의 책임을 운영 탓으로 돌리는 김진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운영의 주체적 선택과 적극적 행동에서 비롯된 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김진사의 저 말이야말로 규범을 어겨 가면서 벌인 애정 행각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계⁵²⁾인 동시에

51)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孟子』, 599쪽)

52) 김미영, 『유교문화와 여성』, 살림, 2004, 41쪽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방식에서는 성적 욕망이 주된 주체가 아니고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정절이데올로기에 의존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남성에게서 섹슈얼리티의 통제는 여성에게처럼 가족이라는 범위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펴게 되는 정치사

비극적 결말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남성의 자기합리화일 뿐이다.⁵³⁾

이상 애정전기소설의 전통 속에서 <운영전>을 살펴보았다. <운영전>은 그 제목에서부터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1인칭 여성 서술자를 등장시켰으며 여성의 주체적 면모가 매우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애정전기소설과 구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운영전>만의 독창이 아니라 전대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기법을 원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전>에서 여성의 비중 강화가 여성의 주체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운영전>이야말로 당대까지 창작된 어떤 애정전기소설보다도 남성적 욕망이 극대화된 작품이며, 여성은 남성적 욕망의 객체로 대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몽유록의 전통과 <운영전>

지금까지 <운영전>은 대개 애정전기소설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조선시대 독자들은 <운영전>을 애정전기소설로만 읽었던 것 같지는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방요로기(三芳要路記)』에 실려 있는 <운영전>의 제목은 ‘유영전(柳泳傳)’이고 고려대학교 소장본으로 같은 제목의 이본이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운영전>에는 “조선국초안평대군사적(朝鮮國初安平大君史蹟)”이란 말이 보인다.⁵⁴⁾ 필자 또한 『어록해(語錄

회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기되는바, 남성들에게서는 성적 욕망을 왜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53) <운영전>을 비롯한 애정전기소설의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는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결말 구조』(『동양학』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에서 논하였다.

解』가 부록된 <운영전>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의 표제(表題)는 ‘비해당소설(匪懈堂小說)’이다. 한편 김태준은 <운영전>이 일명 <수성궁몽유록(壽聖宮夢遊錄)>이라고도 하였다.⁵⁵⁾ 제목이 ‘수성궁몽유록’으로 된 이본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운영전>이 그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운영전>이 애정전기소설로만 읽힌 것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사적, 곧 몽유록으로 읽히기도 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전>은 왜 몽유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운영전>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몽유록의 서술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몽유록은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는데,⁵⁶⁾ <운영전>은 이 같은 몽유록의 서술구조에서 ‘토론’ 부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에서 그 양식적 특성을 확고히 한 몽유록은 토론과 시연을 중심으로 몽중세계가 전개되고 작품에 따라 시연이 약화·생략되기도 하는데,⁵⁷⁾ ‘토론’은 주제의식이 집약된 부분이다.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몽유자 유영과 몽중인물 김진사·운영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몽중인물들의 일방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유영은 ‘(방)청자’라 할 만하다.⁵⁸⁾

54) 박혜진, 『운영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12~13쪽.

55) 김태준(박희병 교수),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73쪽.

56) 신재홍, 『몽유록의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15쪽에서 <元生夢遊錄>의 서술구조가 ‘入夢-引導 및 坐定-討論-討論의 鎮靜 혹은 잔치의 排設-詩宴-詩宴의 整理-覺夢’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몽유록의 일반적인 서술 구조이기도 하다.

57) 신재홍(1986), 위의 논문, 16쪽.

58)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2~7쪽에서는 몽유록의 유형을 방관자형·참여자형·주인공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유생(柳生)이 말했다. “말이 나왔는데 다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 않는 게 더 나옴만도 못하지요. 안평대군 성시의 일과 진사께서 가슴 아파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⁵⁹⁾

유영은 꿈속에서 김진사를 만나 ‘안평대군 성시의 일[安平盛時之事]’과 ‘김진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進士傷懷之由]’를 묻는다. 유영은 안평대군 시절을 성시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와 같은 성시에도 김진사처럼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위와 같이 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전>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말한 내용이 곧 ‘안평대군 성시의 일’과 ‘김진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인 셈이다. 김진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다음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지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슬피 울며 스스로 억제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하며 말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원수 중놈은 이미 제거되었으니 분통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비통함을 그치지 않으십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함을 한하십니까?” 김생이 눈물을 거두며 사례하여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한을 머금고 죽었기에 명사에서 그 무죄함을 가련히 여겨 인세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으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세상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일은 돌아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하는 까닭은 대군이 한 번 패하매 고궁에는 주인이 없고 참새만 슬피 울며 사람의 발자취는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갓 전란을 겪은 후라 화려한 집은 갱터미가 되고 분칠한 담장은 무너졌는데, 오직 섬돌에는 꽃들만 향기롭고 뜰에는 풀들만 무성합니다. 봄빛은 옛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나 인사는 이렇게 바뀌고 말

59) 生曰 言出而不盡 則初不如不言之爲愈也 安平盛時之事 進士傷懷之由 可得聞其詳乎(<운영전>, 337쪽)

있습니다. 다시 찾아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⁶⁰⁾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의 불행은 특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운영과 김진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김진사는 자신이 가슴 아파하는 이유로 ‘대군일패(大君一敗)’, 곧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잠시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유록이 교술인지 서사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몽유록이 교술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⁶¹⁾ 예컨대 <원생몽유록>을 보면, 원자하의 꿈속에 나타난 왕과 신하들은 단종과 그 신하들로 인식되므로, 바로 여기에서 몽유록의 교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몽유록의 교술적 성격은 결국 몽중인물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원생몽유록>에서 둘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성삼문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시 가운데 나오는 “의를 취하고 인을 이름은 부자가 한가지라.[取義成

60) 寫畢擲筆 兩人相對悲泣 不能自抑 柳泳慰之曰 兩人重逢 志願畢矣 讐奴已除 憤愧洩矣 何其悲痛之不止耶 以不得再出人間爲恨乎 金生收淚而謝曰 吾兩人皆含怨而死 冥司怜其無罪 欲使再生人世 而地下之樂 不減人間 況天上之樂乎 是以不願出世矣 但今夕之悲傷 大君一敗 故宮無主人 鳥雀哀鳴 人跡不倒 已極悲矣 況新經兵火之後 華屋成灰 粉牆頽毀 而唯有階花芬菲 庭草敷榮 春光不改昔時之景 而人事之變易如此 重來憶舊 寧不悲哉(<운영전>, 381~382쪽)

61) 몽유록을 교술로 보는 견해는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98~106쪽에서는 몽유록이 기본적으로 서사물이라고 하면서 몽유록을 ‘교술적 서사로 규정하였다. 몽유록 가운데는 ‘교술성’이 강화된 것과 ‘서사성’이 강화된 것이 있고, 논자의 시각에 따라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필자는 몽유록을 ‘교술적 서사로 보는 신재홍의 견해에 동의하며, 여타 서사물들과 다른 ‘몽유록’의 본질이 바로 ‘교술성’이라고 이해한다.

仁父子同]”라는 대목이 성삼문과 그의 부친 성승이 함께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은 <강도몽유록>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몽유록은 몽유자가 만난 몽중인물의 진술이 작품 외적 사실, 곧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암시한다는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이 <운영전>에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내용은 ‘안평대군 성시의 일 [安平盛時之事]’이고, ‘김진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進士傷懷之由]’는 ‘안평대군의 패배[大君一敗]’인데,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곧 안평대군 성시의 일과 그의 패배에 대한 은유일 수 있는 것이다.

<운영전>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안평대군에 대한 평가인데, 선행 연구에서는 안평대군을 긍정적 인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 인물로 보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운영전>을 애정전기소설로 보는 관점에서 안평대군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작품의 문면에서는 남녀 주인공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인물이 특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 안평대군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김진사와 운영이야말로 자신을 패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자 국법을 범한 죄인에 불과하다.

여기서 안평대군의 입장에서 <운영전>을 이해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운영전>의 주인공은 운영과 김진사이고 그들의 사랑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성공의 형상 및 몽중인물의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꿈을 꾸는 장소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컨대 <원생몽유록>에서 원자허(元子虛)는 장사(長沙)의 언덕으로 인식되는 곳⁶²⁾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는데, 장사는 초(楚) 의제(義帝)가 항우(項羽)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므로, '장사'라는 공간적 배경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의 비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⁶³⁾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에서는 몽유자 유영이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을 찾아와 꿈을 꾸므로, <운영전>은 곧 안평대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영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안평대군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안평대군 시절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 김진사라는 점이다. 더욱이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속에서 단지 흐릿하게 포착될 뿐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점은 폐허가 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수성궁의 형상과 대응 관계에 있다. 요컨대 수성궁이 폐허가 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점, 유영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안평대군이 아니라는 점,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속에서 안평대군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결국 안평대군에 대한 '기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원생몽유록>에서는 몽유자 원자허를 비롯하여 몽중인물인 단종과 여섯 신하 및 폭건자(幅巾者)가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모두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다. 한편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의 성사와 그 패배를 진술하는 인물은 운영과 김진사인데, 문제는 그들과 안평대군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안평

62) 恨入長江咽不流 荻花楓葉冷颼颼 分明認是長沙岸 月白英靈何處遊(<원생몽유록>, 168쪽)

63) <원생몽유록>의 작품 분석은 김정녀, 「몽유록의 현실대응 양상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7, 18~31쪽 참조.

대군은 운영과 김진사가 주군으로 섬겨야 했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는 적대자이기도 하다.

안평대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필자는 안평대군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진 운영과 김진사의 입을 통해 안평대군 당대의 일이 진술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운영전>의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적대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운영·김진사·안평대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운영과 김진사의 목소리로써 들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천한 궁녀도 똑같은 인간이라 여겨 은전을 베풀었던 안평대군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 인물로, 국법을 범한 죄인인 운영과 김진사는 안평대군의 폭압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로 기억되었으며, 안평대군의 패배는 그의 자기모순으로 인한 몰락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몽유자 유영은 만력 신축년에 수성궁을 찾아간다. 문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수성궁을 찾아간 이유는 ‘안평대군의 성시’에 대한 희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성궁이야말로 안평대군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가 전란을 갖 겪은 뒤여서 수성궁에서 안평대군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안평대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영의 꿈속에 안평대군이 아니라 운영과 김진사가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술 속에서 안평대군이 잘 포착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사태는 안평대군의 사적이 안평대군을 패배로 몰아넣은 운영과 김진사의 ‘일방적 진술’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서술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없기에 거기에는 왜곡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운영전>은 안평대군

을 패배시킨 인물들의 입을 통해 안평대군의 사적이 서술되고 있는 풍유록인 것이다.

유영이 수성궁에서 안평대군을 소환하지 못한 이유는 안평대군을 기억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운영전>의 서두는 수성궁과 그 주변의 승경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그 아름다운 장관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전란이라는 폭력이 곧 안평대군 당대의 일인 계유정난을 빚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란은 안평대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들을 소거시켜 버렸지만, 유영은 그 같은 폐허 속에서도 안평대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성궁으로 간다. 그가 수성궁을 찾은 1601년은 계유정난으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때이고, 안평대군의 복권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17세기 초반의 안평대군에 대한 공식기억들은 모두 안평대군을 패배시킨 자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⁶⁴⁾ 그리고 이와 같은 당대의 현실은,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을 패배시킨 운영과 김진사가 그들의 입장에서 안평대군 시절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운영전>은 그와 같은 공식기억에 대한 대항 기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운영전>은 17세기 초반 안평대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64) 이종목, 「안평대군의 문학 활동 연구」(『진단학보』93, 진단학회, 2002)에서 안평대군의 문학 활동에 대해 다루었는데,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기에 관련 자료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이 논문 273쪽에서 안평대군이 죽은 지 약 2백여 년 후에 南九萬과 吳道一이 지은 시를 소개하였는데, 남구만의 <見安平書刻本有感>에서는 “무계동 깊은 곳에 새 소리 슬픈데, 비해당 높은 집은 터도 찾기 어렵네. 호화로운 의기는 꿈결 같은데, 그저 유목을 가지고서 당시를 알아볼 뿐.[武溪深洞鳥聲悲 匪懈高堂不辨基 意氣豪華如夢裏 只將遺墨認當時]”이라고 했다. <운영전>의 시간적 배경인 1601년보다 몇 십 년 뒤의 작이지만, 유영이 수성궁에서 느꼈을 비회와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안평대군의 모습은 왜곡된 일방적 목소리 너머에 어렴풋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4. <운영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전>은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운영전>의 양식적 특징이 17세기 소설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⁶⁵⁾

<운영전>이 창작된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로는 <최치원>·<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하생기우전>을 꼽을 수 있다. 이 소설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남주인공 혹은 작자의 불우한 처지나 세계관을 빚댄 ‘우의’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기에 이 작품들 속의 남주인공들은 여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이면서도 혼인할 때가 되어도 짝을 찾지는 못하는 고독한 인물, 혹은 현실에서 소외된 낙척불우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남주인공들은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에 비해 고독한 인물 혹은 낙척불우한 인물로서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주생전>의 주생이나 <위생전>의 위생처럼 성적 욕망에 탐닉하는 인물, 혹은 <운영전>의 김진사나 <상사동기>의 김생처럼 전도유망한 서생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결과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애정서사에서는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의 그것과는 달리 우의적 성격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65) 17세기 소설사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많은데, 최근 김종철,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요컨대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은 우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은 통속적 성향이 강한 것이다.⁶⁶⁾

이처럼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은 이전 시기 애정전기소설의 우의성을 소거하면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애정전기소설은 이전 시기 작품들과는 변별되는 새롭고 기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전기(傳奇)’의 속성에 충실하게 되었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작품 분량 증가와 서사적 편폭 확대는 이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⁶⁷⁾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이 우의성을 탈거하게 된 것은 이 시기 소설의 통속적 성향에 기인한 결과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추구한 통속적 서사와 어떤 이야기를 통해 작자의 세계관을 표현한 우의적 서사가 이 시기에 이르러 분리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서사문학사의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몽유록이다.

몽유록의 원천으로는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영호생명몽록>·<용당영회록> 및 『금오신화』의 <취유부벽정기>·<용궁부연록>을 꼽을 수 있는데,⁶⁸⁾ 이 작품들은 ‘지우류(知遇類) 전기소설’이다.⁶⁹⁾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의 서술구조를 가진 몽유록은 16세기 <원생몽유록>에 이르

66)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통속성에 대해서는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3을 참조할 수 있다.

67)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154~194쪽.

68) 김정자, 「몽유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78, 76~84쪽; 신재홍, 「몽유록의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40~41쪽.

69) 윤재민,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17~22쪽; 윤재민, 「한국한문소설의 유형론」, 『민족문화연구』3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51~154쪽.

러 그 양식적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원생몽유록>에서는 아직 ‘공간’과 ‘기억’이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원자허는 초의제가 죽임을 당한 장사에서 단종과 사육신 등을 만나는데, 이 점에서 <원생몽유록>은 <조의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사는 분명 역사적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곳을 단종이나 사육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기』나 <조의제문>을 경유해야 했으므로, <원생몽유록>의 장사는 기본적으로 허구의 공간이다. 이처럼 <원생몽유록>에서 그 싹이 보였던 ‘공간’과 ‘기억’의 문제는, 1591년에 창작된 최현의 <금생이문록> 및 1600년에 창작된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 이르러 불가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몽유록의 서사 문법으로 자리 잡는다.⁷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몽유록은 그 교술적 성격 및 그로부터 비롯되는 우의의 양식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서사문학사의 판도는 몽유록이라는 양식의 약진으로 인해 (애정)전기소설이 그 우의적 성격을 상실하고 통속적으로 경사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⁷¹⁾ <운영전>은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최치원> · <만복사저포기> · <이생규장전> · <하생기우전> 같은 애정전기소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우의이지만, 그 우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최치원>은 나말의 실존인물 최치원이 등장하는 작품이기에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확해 보이지만, 다른 작품들은 작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작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금오신화』가 계유정난 같은 김

70) 몽유록에 나타난 ‘공간’과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71) 그 밖에 <안빙몽유록> · <서재야회록> · <천군전> · <수성지> · <화사>같이 의인화의 수법을 활용한 작품들도 16세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이들 역시 우의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시습 당대의 일과 그로부터 비롯된 그의 삶과 세계관을 서술한 작품이라는 점은 짐작이 가능하지만, 『금오신화』 전편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구절을 발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조차도 작자가 김시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지, 만약 『금오신화』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전승되었다면, 우리는 『금오신화』를 계유정난 등의 사건과 연결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김시습 당대에 계유정난 같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소설이야말로 그 자신의 생각을 빗낼 가장 적합한 양식이었겠지만,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서사이기 때문에 그 우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몽유록은 그 교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의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었다. 물론 몽유록 중에도 몽유자의 꿈속에서만큼은 몽중인물의 실명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몽유록에서는 몽중인물의 이야기가 작품 외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유자가 꿈을 꾸는 곳이 몽중인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몽중인물이 누구이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운영전>은 이와 같은 몽유록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전>은 몽유자 유영의 꿈속에 나타난 몽중인물들이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시기의 몽유록과 구분된다. 하지만 몽중인물들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필 ‘안평대군’과 ‘성삼문’만이 실존인물이라는 점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몽유록의 전통에서 본다면, 작품 속에 ‘안평대군’과 ‘성삼문’이라는 실존인물이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이미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영전>이 창작된 17세기 초에 ‘안평대군’과 ‘성삼문’의 조합이 어떤 의

미로 받아들여졌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서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과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이 그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최치원>의 최치원, <만복사저포기>의 양생, <이생규장전>의 이생, <하생기우전>의 하생 등에서 보였던, 낙척불우하거나 고독한 남주인공의 유전자는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남주인공들에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낙척불우하고 고독한 남주인공이 사라졌지만, 그러한 남주인공의 형상은 서사문학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몽유록으로 계승되었으니, <원생몽유록>의 원자허와 <운영전>의 유영이 바로 그들이다. <최치원>·<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하생기우전> 같은 애정전기소설 남주인공의 욕망을 ‘성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 구분할 수 있다면,⁷²⁾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이르러 이 두 욕망은 각각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이라는 두 양식으로 분화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은 김진사라는 남주인공의 성적 욕망을 다룬 애정전기소설이자 유영이라는 몽유자의 사회적 욕망을 다룬 몽유록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운영전>은 이 시기 두 양식에 분리되었던 두 가지 남성적 욕망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운영전>은 그 제목에서부터 이미 몽유록이 아니고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일반적인 제명 방식을 따르지도 않았다. 작품의 제목이나 등장인물의 비중으로 본다면, 우리는 <운영전>의 주인공이 운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영이 주인공이라 하여 욕망의 진정한 주체마저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의 전통에서 본다면, 운영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교묘히 은폐하는

72) 박일용, 「초기 애정 전기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

서술자이고 안평대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었음을 증언하는 전달자이다. 운영은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여성으로서의 최초로 주인공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실은 두 가지 남성적 욕망의 객체였던 것이다.

<운영전>은 애정전기소설이기도 하고 몽유록이기도 하다. 그런데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야기는 결국 몽유록의 ‘토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운영전>은 기본적으로 몽유록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품 말미에 나오는 김진사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진사가 눈물을 뿌리고 운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바닷물이 마르고 돌이 문드러져도 이 정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며 땅이 늙고 하늘이 황폐해져도 이 한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만나 진실한 마음을 터놓았으니 전생의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글을 거두어 주시어 길이 전해 주시되, 경박한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어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정말로 다행이겠습니다.”⁷³⁾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읽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김진사는 이미 운영과 함께 생전에 못다 한 인연을 천상에서 영원히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강(謫降)했었을 때의 일에 대해 미련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운영전>이라는 작품에 대한 작자의 견해일 수 있다. 즉 이 작품이 경박한 자들의 입에나 오르내릴 ‘우스갯거리’가 아니라는 말이며, 이는 곧 <운영전>을 그런 이야기로 읽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우스갯거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73) 乃揮淚而執柳泳之手曰 海枯石爛 此情不泯 地老天荒 此恨難消 今夕與子相遇 攄此悃悞 非有宿世之緣 何可得乎 伏願尊君 俯拾此藁 傳之不朽 而勿使浪傳於浮薄之口 以爲戲翫之資 幸甚幸甚 (<운영전>, 382~383쪽)

것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런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결국 작자는 김진사의 입을 빌려 <운영전>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애정전기소설]’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⁷⁴⁾ 여기서 우리는 <운영전>을 ‘안평대군의 사적[몽유록]’으로 읽었음을 증언하는 기록들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영은 술기운에 잠시 잠들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산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바라보니, 안개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아득한데, 사망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 단지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 있을 따름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무료하여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책상자에 간직해 두면서 때로 열어보곤 하다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어디에서 삶을 마쳤는지는 알지 못한다.⁷⁵⁾

<운영전>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와 같은 ‘입산부지소종(入山不知所終)’의 결말은 몽유록의 결말 방식이 아니라, <최치원>·<만복사저포기>와 같은 애정전기소설의 결말 방식이다.⁷⁶⁾ <최치원>·<만복사저포기>의 남주인공들은 모두 짝을 찾지 못하는 고독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74)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박기석(1990), 앞의 논문, 722쪽에서 “이 글에서 우리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 즉, 겉으로는 운영과 김진사의 情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안평대군의 실상이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또 이 말 속에는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며, 정당하게 평가받지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간접적인 비판의식이 내재해 있다고도 하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75) 柳泳乘醉暫睡 小焉 山鳥一聲 覺而視之 雲烟滿地 曉色蒼茫 四顧無人 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 泳悵然無聊 袖冊而歸 藏之篋笥 時或閒覽 茫然自失 寢食俱廢 後遍遊名山 不知所終云爾(<운영전>, 383쪽)

76) <최치원>의 경우 ‘不知所終’이란 말로 마무리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不知所終’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있는데, 최치원과 양생이 작품의 말미에서 세상을 등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귀신과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는 배필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인바, 그들의 ‘입산부지소종’은 결국 명혼이라는 환상 체험이 욕망이나 의문을 충족·해결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독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밖에 되지 않은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의 부지소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몽유록은 기본적으로 몽유자의 욕망이나 의문이 몽중체험을 통해 해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⁷⁷⁾ 몽유록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무리 심각하거나 비극적이어도 ‘입산부지소종’의 결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몽유자가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꿈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운영전>은 몽유록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입산부지소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 이는 영이, 마치 최치원과 양생처럼,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⁷⁸⁾ 몽유록의 전통에 따르면, 몽유자 영은 안평대군 시절 같은 성시를 꿈꾸는 동시에 그의 패배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인물

77)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3 쪽에서 몽유록에 대하여 “이 양식은 이념의 관철에 서사적 탐색의 기본축이 놓인다. 주인공은 좌절된 이념을 품고 방황하는데, 그가 꿈속에서 만나는 인물은 모두 주인공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꿈속체험은 경험세계와 이념 사이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원한을 품은 인물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꿈속체험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의 서사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78) 최치원과 양생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살아있는 여인이었지, 이미 죽은 귀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영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안평대군이었지 영이나 김진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용궁부연록>이나 <최생우진기> 같은 지우류 전기소설도 ‘入山不知所終’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入山不知所終’의 결말이, 주인공의 이계 체험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유영이 수성궁에서 만난 사람은 안평대군이 아니라 운영과 김진사였고, 그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진술은 유영의 욕망이나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요컨대 유영은 몽중체험을 통해 안평대군의 성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패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답도 찾지 못했던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애정전기소설 및 몽유록의 전통 속에서 <운영전>을 살펴본 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전>은 그 제목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 궁녀라는 특수 신분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 여성 서술자가 등장하여 연애 사건을 진술한다는 점, 여성의 옛보기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소설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에 주목하여 <운영전>을 여성 주체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에서 볼 때, 이런 면모는 <운영전>만의 독창이 아니라 전대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기법을 원용한 결과이며, 남성의 성적 욕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운영전>에서 여성 서술자가 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성 독자들로 하여금 규방보다도 깊숙한 궁궐을 옛보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운영은 여선과 유사하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수성궁은 여성들의 내밀한 공간이라는, 다시 말해 금남의 공간이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성적 환상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궁녀 운영이 안평대군의 구애를 거절하고 포의 김진사와의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역시 남성의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다. 요컨대 <운

영전>은, 여타 애정전기소설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적 욕망을 표출한 소설인 것이다.

몽유록은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전>은 이 같은 몽유록의 서술구조에서 ‘토론’ 부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운영전>에서 몽유자 유영은 꿈속에서 김진사에게 ‘안평대군 성시의 일’과 ‘가슴 아파하는 이유’를 묻는데, 이는 곧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꿈을 꾸는 장소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안평대군의 옛집에서 입몽하는 유영의 꿈속에 안평대군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오히려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진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적대자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 점에서 <운영전>은 여타 몽유록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란을 겪은 후 수성군이 폐허가 되어 안평대군을 소환할 수 있는 기념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안평대군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진 인물들의 입을 통해 안평대군 시절의 이야기가 회상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운영전>이 창작된 17세기 초, 안평대군에 대한 공식기억들은 모두 안평대군을 폐배시킨 자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바, 이와 같은 당대의 현실은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을 폐배시킨 운영과 김진사가 그들의 입장에서 안평대군 시절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운영전>은 17세기 초반 안평대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평대군의 모습은 왜곡된 일방적 목소리 너머에 어렴풋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몽유록인 것이다.

<운영전>은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적 욕망

을 드러내는 동시에 남주인공 혹은 작자의 불우한 처지나 세계관을 빚댄 우의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애정전기소설은 우의적 성격을 상실하고 통속적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16세기 말부터 몽유록이 우의의 양식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했던 점과 관계가 있다. <운영전>은 17세기에 애정전기소설과 몽유록이라는 두 양식에 각각 투영된 두 가지 욕망, 곧 남주인공의 성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李昉 等 編, 『太平廣記』, 中華書局, 1961.
- 張鶯, 川島 校點, 『游仙窟』, 書目文獻出版社, 1989.
- 정용수 역주, 『전등신화구해 역주』, 푸른사상, 2003.
- 『經書: 大學·論語·孟子·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
-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38, 한국고전문학회, 2011, 125~160쪽.
- 권혁래, 「생산과 수용의 측면에서 본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박이정, 2012, 116~117쪽.
-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35~65쪽.
-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13~242쪽.
- 김낙효, 「영영전과 운영전의 비교연구」, 『한국학논집』1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65~88쪽.
-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33~272쪽.
-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 327~360쪽.
- 김정녀, 「몽유록의 현실대응 양상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7, 18~31쪽.
- 김정숙,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221~242쪽.
- 김정자, 「몽유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78, 76~84쪽.
- 김종철,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85~138쪽.
- 김태준(박희병 교수),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73쪽.
-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6, 316~317쪽.

- 大谷 森繁, 『운영전 소고』,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65~199쪽.
-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711~724쪽.
-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6~188쪽.
- 박일용, 『초기 애정 전기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17~54쪽.
- 박혜진, 『운영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12~13쪽.
- 배원룡,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고찰』, 『국제어문』2, 국제어문학회, 1981, 73~94쪽.
-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2~7쪽.
- 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845~862쪽.
- 송재에, 『운영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7, 1~165쪽.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9,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55~84쪽.
-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5, 국문학회, 2001, 215~240쪽.
- 신재홍, 『몽유록의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15~41쪽.
-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3~106쪽.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1~137쪽.
-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 『어문연구』8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23~47쪽.
-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295~335쪽.
-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3, 1~223쪽.
-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23~149쪽.
- 엄기영, 『운영전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18,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1, 157~178쪽.

- 엄기영, 『운영전과 갈등 상황의 조정자로서의 자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379~397쪽.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결말 구조』, 『동양학』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1~28쪽.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154~194쪽.
-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39~69쪽.
-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1996, 333~367쪽.
-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53~67쪽.
- 윤재민,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12~37쪽.
- 윤재민, 『한국한문소설의 유형론』, 『민족문화연구』3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33~168쪽.
-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 보고서, 2003, 53~62쪽.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쪽.
- 이종득, 『안평대군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93, 진단학회, 2002, 257~275쪽.
-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26, 국문학회, 2012, 133~164쪽.
-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115~143쪽.
- 전용오, 『운영전의 발생론적 고찰』, 『인문논총』10,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39~54쪽.
- 정규복, 『운영전의 제문제』, 『한국고소설사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2, 198~210쪽.
- 정규식, 『운영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리』,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41~70쪽.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1~103쪽.
- 정범진, 『당대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2, 부록 157쪽.
-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

- 각, 소명출판, 1996, 81~121쪽.
-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61~292쪽.
-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131~151쪽.
-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쪽.
- 최재우, 「운영전 갈등구조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열상고전연구』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293~325쪽.
- 최진아, 『환상·육망·이데올로기,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8, 266~276쪽.
- 하은하, 「운영전에 관한 양식내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4, 1~71쪽.
-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육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0, 1~133쪽.

ABSTRACT

Unyeongjeon: Its Stylistic Features and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

Eom, Tae-sik

Unyeongjeon is a characteristic novel in respect to story-telling from the first-person view of a female narrator, and representing leading character of a court lady, and employing a Rahmennovelle structure. However, the above-mentioned features not only belong to *Unyeongjeon*, but were inherited from the traditional literary heritages of Romantic Jeon-gi novel and Mongyurok.

Specifically, *Unyeongjeon* corresponds to both a Romantic Jeon-gi novel through Gimjinsa's sexual desire and to Mongyurok through Yuyeong's ambitions for success. By the 17th century, Romantic Jeon-gi novel tends to be a popular novel while disappearing allegorical tendency, because Mongyurok has already tightened its grip on the stylistic features of allegory from late in the 16th century to early in the 17th century. *Unyeongjeon* came into the world reflecting these currents of Korean novel history.

Key Words *Unyeongjeon*, Romantic Jeon-gi Novel, Mongyurok, Anpyeongdaegun.

논문투고일 : 2013. 09. 30

심사완료일 : 2013. 11. 23

게재확정일 : 2013. 11. 26

